



*The Great Asan,
The Great Citizen!*

위대한 아산, 위대한 시민!

미시간주 랜싱시와 이스트랜싱시는 10월 13일을 '아산시의 날'로 선포

국제화 세계화는 어느 사이에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이 풍시간대에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이제 국제화가 진전되어 지

역발전의 하나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국제교류가 아직도 찬반론 같은 의례적 교류나 일회성 행사에 그치기 쉬운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아산시장과 아산시의회의 의장, 아산시교육관계

자 등은 지난 2006년 2월 14일 미시간주 랜싱시와 아산시가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후 랜싱시의 답방요청에 따라 성사된 미국방문을 통하여 양도시간 우호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주요 관심사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이끌어 냈으며 아산지역

발전과 교육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특히, 교육분야에 대해 실질적인 상호교류와 협력의 기본틀을 마련하였으며 랜싱시와 이스트랜싱시는 10월 13일을 '아산시의 날'로 선포하며 아산시의외 교류를 축하했다.

아산만평



세계적인 명문 미시간주립대 진학을 위한 교두보 확보 외국연수에 따른 불신과 비효율성 문제 근본적 해결

아산시와 랜싱시 및 이스트랜싱시는 교육협약에 따라 아산시 교육청과 미국내에서도 가장 우수한 학군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스트랜싱시 교육위원회와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우리지역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국의 가정에서 머물면서 어학연수를 할 수 있는 어학연수협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2007년부터 30명을 선발하여 홈스테이 및 현지교사를 활용한 어학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지역 학생들이 안심하고 미국에서 언어연수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

련하여 우리지역 학부모들로부터 환영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립대학인 랜싱시 커뮤니티 컬리지(2년제 전문대학)를 졸업한 후 세계적인 명문대학인 미시간주립대학교(세계 64위) 3학년에 편입하는 과정을 협의하였으며 아산시 출신을 우선하여 순천향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과정 2년차에 미시간주립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수업한 후 3년차에 편입학 절차를 거쳐 미시간 주립대학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였다.

(4면에 계속이어집니다.)



▲ 아산시장과 의회위원장, 랜싱시장, 이스트랜싱시장이 교육, 교류에 대한 협약서에 서명

아산시민대상 자랑스런 얼굴들

시는 10월 2일 오후2시 국민생활관 극장에서 시민의 날 기념식을 갖고 아산시민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수상자로 확정된 각 부문별 수상자는 효행



한선남(효행부문)



이만우(교육부문)



장광식(사회봉사부문)



최성원(지역개발부문)

세), 사회봉사부문 장광식(남 39세), 지역개발부문 최성원(남 52세) 등이다.

▲ 효행부문 수상자로 결정된 한선남은 중풍을 앓고 있는 시모와 직장암으로 사망하신 시부를 17년 이상을 지극 정성으로 봉양하였음을 인정받았다.

▲ 교육문화부문 수상자로 결정된 이만우는 30년을 투철한 교육관과 사명감으로 학생

교육에 전념하였으며, 특히 40여년 이상을 향토예술 발전을 위해 헌신하였음을 인정받았다.

▲ 사회봉사부문 수상자로 결정된 장광식은 무의탁 독거노인 지원, 초등학교 졸업생 장학금 지원, 결식아동 종식지원, 사랑나눔이 후원가정에 대한 분기별 쌀지원 사업 등 사회봉사에 헌신하였음을 인정받았다.

▲ 지역개발부문 수상자로 결정된 최성원은 탐정면 자율방범대장과 지역사회복지 회장직을 역임하면서 질서유지와 범죄예방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었다.

지역사회에서의 박물관 역할 모색을 위해

2006 민속생활사박물관 협력망 워크숍 개최

국립민속박물관(관장 신광섭)과 온양민속박물관(관장 김은경)은 아산시청의 후원으로 오는 11월 4일(토)부터 6일(일)까지 3일간 “지역사회에서의 박물관의 역할”을 주제로 한 2006 민속생활사박물관 워크숍을 공동 개최한다. 지난해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개최된 이 행사는 지역으로 장소를 옮겨 아산시에 위치한 온양민속박물관에서 성대하게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지역에서 처음 개최된다는 점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협력망사업에 대한

지역에서의 반응을 직접 접할 수 있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아산시에서의 박물관 역할을 조망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2006 민속생활사박물관 협력망 워크숍은 아산시청 대강당에서 11월 6일(월) 오후 1시 부터 4시간 30분동안 “지역사회에서의 박물관 역할”이라는 주제로 7개 발표와 열띤 토론으로 이루어진다. 덕포진교육박물관의 ‘전시물을 매개로 한 경험과 참여’와 한발

교육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한 박물관 활성화’ 등은 민속생활사박물관 협력망 사업의 활성화 방안과 지역공·사립박물관의 교육에 대한 열정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또한 박물관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고 유익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물관교육 체험마당이 온양민속박물관 야외전시장에서 11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열린다. 온양민속박물관의 한지공예 체험을 비롯하여

인제산촌민속박물관의 팻묵 만들기, 명주사 고판화박물관의 숲속관화교실, 한국대나무박물관의 죽제품 제작 체험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10여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전통무예공연, 풍물놀이 등 우리의 자랑스런 무형문화유산 및 찾아가는 민속박물관 버스 전시가 함께 어우러지는 동시에 온양민속박물관을 배경으로 하는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사진 찍기” 코너 및 누구나 동심으로 돌아가 보는 민속놀이 체험마당 등도 펼쳐질 것이다. 이와 같은 풍성한 문화체험을 통해 행사에 참여하는 관람객들에게는 우리 문화의 참맛을 느끼고, 좀 더 박물관에 친숙하게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진 교육 도시를 향한 힘찬 발걸음 속에 꽃 피는 미래

오늘날 인류 문화는 그것을 이해(理解)하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어제의 아르누보(Art nouveau)는 오늘 벌써 고전(古典)으로 밀려나고, 어제의 첨단기술이 오늘은 7 빛을 잃는다. 문화도 이제 속도전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방심하는 순간 경쟁에서 뒤로 밀려난다. 어느 누구도 의도적인 노력과 전략 없이 미래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미래는 닥아 오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라는 말이 있다. 이는 국가를 도덕적인 최고의 결성체로 인식하고 있을 때의 말인데 개인의 자아실현이 지상 과제로 등장한 오늘날, 교육은 어찌 보면 개인의 백년대계에도 불가불이 관계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만큼 교육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은 갈수록 치열해져 이상(異常) 과열은 물론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도 유발(誘發)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교육이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한 그 어느 누구도 교육 앞에서 당당해 질 수는 없을 것이다. 교육은 오늘날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할 운명적 명에 와도 같다 하겠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 인식 하에 우리들이 미래를 설계하는 도구(道具)로 사용하여 할 것이다. 미래는 교육을 통하여 그 꽃을 피운다.

교육은 목표의 제시만으로 이루어지는 성은(聖

憲)이나 영적(靈的) 은혜(恩惠)가 아니다. 교육은 목표 제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달성하는 기술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즉 교육은 이념론과 방법론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데 물질문화의 발달과 더불어 방법론적 인식이 보다 보편화 되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교육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특성을 그 요소로 하게 되었고 더불어 이에 대한 체계 수립이 주요 관심의 대상으로 되었다. 이제 체계적이지 못한 무조건적인 노력은 그 의의가 상실되어 버렸다 하겠다. 그래서 수신(修身)을 문화의 중핵으로 삼던 전통 사회에서는, 노력은 그 자체로서 도덕적 가치를 함양하고 있었지만 문화의 다양성이나 총체적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현대 사회에서는 노력만으로 무언을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게 되었다. 효율적인 방법만이 교육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요즈음 강남이 부동산 문제로 자주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데, 그 강남이 20년전 만 하더라도 오늘날과 같지는 않았다. 문제가 이렇게 발전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지만 그 중 하나가 바로 교육의 기회이다. 강남은 서울의 어느 지역보다 교육 방법이 있어서 다양한 접근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곳이었기에 자기 성격에 맞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그 결과 좋은 학교에 진학한율이 타 지역에 비하여 높았고, 그 결과 강남권이 조성되었다 하겠다. 즉 지역을 살리는데 있어서 교육문제가 중

요한 관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강남에서 볼 수 있다.

우리 아산은 충남에서 역사적 유서가 깊은 고장으로 한국사를 수놓은 많은 인물들이 배출되었으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한국이 경제를 주도하는 7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아산은 분명 동북아 시대의 핵심도시로서의 제반 요건을 갖춘 미래형 도시라 하겠다. 문제는 아산의 이러한 자연 인문 지리적 환경을 여하히 개발하고 보존하는가 하는 전략적 방법인데, 바로 지역 사회가 안고 있는 교육 문제라 하겠다. 교육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지역 사회 발전의 중요한 요소이기에 지역의 우수한 교육 환경을 건설하여 미래의 동량을 길러 내는 것이 바로 우리 아산을 발전시키는 지름길이라 하겠다.

이에 우리 아산시는 발전에 대한 정확한 인식으로 세계의 선진 교육 기관과 바로 직거래하여 아산지역에 교육 혁신을 이룩하였다. 동일한 투자로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하겠다. 미국의 미시간 주립대학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좋은 대학이다. 아산시의 진실된 노력으로 지역 학생들이 미시간 주립 대학이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은 실로 아산에 사는 모든 시민들의 행운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아산은 교육 선진 도시로 미래를 꽃피워나갈 터전을 마련한 셈이다.

제10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개최



▲ 본회의

아산시 의회는 제108회 임시회를 2006년 10월 10일 ~ 10월 1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의 11건의 조례안들을 심사하고 안건을 처리하였다. 특히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 아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연간회의 총일수가 80일이내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초과집회가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20일 이내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더 효과적이고 탄력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주요 안건처리 현황】

■ 운영위원회

1.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2. 아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 원안가결
3. 아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 원안가결

■ 총무복지위원회

1. 아산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류
2. 아산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 보류
3.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 ⇒ 수정가결 (제19조 3항의 문구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제21조 1항의 말미에 보육시설 이용실태조사를 삽입)
4.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5.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선정안 ⇒ 원안가결
6.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안 ⇒ 원안가결

■ 산업건설위원회

1.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제31조 제10항을 삭제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며, 제49조제1항 중 "20일 이내"를 "60일 이내"로 수정하고, 제49조 제2항 중 "60일 이내"를

현행대로 "20일 이내"로 수정)

2.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3. 아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운영위원회



▲ 총무복지위원회

기고문 - 공직자의 청렴과 부패방지

글 : 국가청렴위원회 김덕만(언론학박사)

다산 정약용이 쓴 목민심서는 청백리의 모델을 제시한 '도덕교과서'다.

청심(淸心)편에 나오는 아래 글은 이 책의 요지라고 할 만하다. 廉者(염자)收之本務(목지분무)萬善之源(만선지원) 諸德之根(제덕지근). 해석하면 청렴은 목민관의 기본 임무요, 모든 선(善)의 근원이며 모든 덕(德)의 근본이니라. 청렴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이 문장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사육없이 청렴하라는 교훈이다.

서구에서는 청렴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을까. 청렴 의미의 영어 'integrity'는 라틴어 'integritas'에서 유래한다. 첫 용례는 로마제국 시대에 있다. 로마군 지휘관이 아침 점호를 할 때마다 사병들은 각자 갑옷 가슴받이(breastplate)를 치며 크게 함성을 질렀다. 바로 그 구호가 integrity다. '내 갑옷은 견고하여, 혹독한 전쟁도 이겨낼 수 있다'는 상징의 표현이다. 사전에 나온 해석은 wholeness(전체, 완전), soundness(건전, 건강), perfect(완벽)이다.

지난해 7월부터 '청렴' 단어를 쓴 국가기관 명칭이 등장했다. 종전의 부패방지위원회가 국가청렴위원회(약칭 청렴위·KICAC)로 바뀌게 된 것이다. 국가기관 명칭을 이처럼 '부패방지'에서 '청렴' 단어로 변경한 배경에는 언어 관습상 느끼는 몇가지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부패방지'는 부정적 이미지와 후진국 냄새를 풍기는 말투다. 줄 타올, 통제, 수동적인 느낌이 든다. 방어적이고 소극적이며 어두운 면도 내포하고 있다. 반면 '청렴' 어감은 '부패방지'에 비해 긍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이며 적극적이다. 자율, 개방, 능동적인 뉘앙스도 지니고 있다. 부패방지에 내재된 감압적 어감도 부담스럽다. 누가 시켜서 고치기 보다는 스스로 깨끗해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가령, 맑은 하늘(선진국)이 있는데 때로 짙은 유리를 얹음(형벌)으로 세계 다투고 쳐다보려는 움직임

면 어떨까.

세계적인 비정부기관(NGO)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집계하는 국가 청렴도 조사에서 수년간 1위(10점 만점에 9.7점)를 차지하는 북지국가 핀란드를 보라. 언제 어디서나 규정된 봉사료 외에 팁이 없다고 한다. 노점상과 택시는 신용카드로 비용을 결제한다. 국회의원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다닌다. 구석구석을 유리알처럼 드러내 놓은 생활에 익숙한 나라다. 이런 데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거래가 있을 수 없다. 잘 사는 경제 선진국은 사회 건전화 수준이 높은 청렴 선진국이 먼저 실현해야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이에 비해 국제무대에서의 우리나라 청렴도 순위는 낮은 편이다. TI의 부패인식지수(CPI)는 지난해 조사 대상 159개 국가 중 40위권이다. 2003년(133개국 중 50위)보다 다소 개선됐으나 CPI를 처음 조사한 1995년부터 지난 10년간 3.8-5.02점에 머물러 큰 진전이 없는 편이다.

청렴의 진정한 주체는 국민이다. 청렴은 만민 평등을 부르는 미국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의 연설처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 정신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이 청렴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국민에 의해 부정 부패가 감시되며, 국민을 위해 부패 요인 제거와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국가청렴위원회 치는 일은 이같이 국민 스스로 지향하는 청렴의 길을 발벗고 나서 지원하는 것이다. 청렴위는 시민사회 공공기관 기업 할 것없이 모든 국민이 지향하는 '윤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후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임무다.

보이지 않는 국가 경쟁력은 바로 미래 지원인 청렴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덕만 공보담당관)



농업행 정서비스 현장

1.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 농촌에 정착의욕을 가진 전문 후계인력매년 10명이 상을 프로 농업인으로 육성하겠습니다.

2.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 농산물 가격관리의 혁신을 위해 우리시 우수 농특산물 중 최고 수준 재품을 선정하는 '아산시장품질추진제'를 지속확대매년 2개조직 이상 운영하여 지역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망 구축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수출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신선농산물 수출을 류비를 지원매년 5개소 이상하여 수출농업기반 구축과 아울러 독자적인 해외시장 개척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 농업생산 여건 개선을 위하여

- 농촌의 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2개소 100ha의 친환경농업지구 조성하고 점차적으로 확대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 벼의 수질, 건조, 저장, 가공 등에 대한 대농민 일련서비스 체계로 건축된 5개소의 미국종합처리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시설보완과 경영이 합리화될 수 있도록 품질과 소비자에 대한 신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4. 축산산업 발전을 위하여

- 생산자와 소비자 단체의 회원중에서 명예감사원 10명을 위촉하여 분기별 1회 이상 부정축산물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총 10종의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가축전염병이 없는 '청정화 지역'을 실현하겠습니다.

아산 세계적 IT산업의 메카로 급부상

충남 디스플레이센터(Display Center) 개소식 가져

지난 25일 충남 디스플레이 부품 소재 및 장비업체를 중점 육성할 충남디스플레이 센터가 25일 오후 3시에 개소식을 가졌다.

음봉면 소재 충남디스플레이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개소식에는 이완구 충남도지사, 이진구 국회의원, 강희복 아산시장, 윤동섭 산자부미래생활산업본부장, 신진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안경용 충남기업인연합회 회장 외에도 지역대학교 총장을 비롯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성대하게 진행됐다.

충남디스플레이센터는 입주기업유치하기 위해 총 20개실로 이뤄진 800평 임대공간과 총 215평(임대기준)에 달하는 콜린룸 5개실을 지원할 예정이며 주변 기업들의 움직임 또한 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의 센터 입주기업은 디스플레이 부품·소재, 장비 관련 기업의 연구소나 개발팀, 디스플레이 관련 중소 벤처기업과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될 것 이라는게 센터측 설명이다.

특히, 입주기업에게는 센터가 보유

한 다양한 장비들을 저렴한 가격에 활용 가능하며, 센터가 추진하는 각종 지원 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관련 기업들의 많은 주목을 끌고 있다.

한편, 충남디스플레이센터는 평가·분석·표준화 분야 세계적 인증기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광특성 평가실의 KOLAS인증 및 신뢰성 평가실의 공인기관화 등 센터 전체 평가실의 공인 및 인증기관화를 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적 디스플레이 인증기관으로 충남디스플레이센터가 자리매김하게 되면 충남 및 전 국가적으로 경쟁력 있는 디스플레이 강국으로 거듭

나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이번 충남디스플레이센터 개소로 인해 크리스탈 밸리에 위치한 중소기업들은 큰 비용을 들여 디스플레이

관련 평가 및 분석 장비들을 설치할 필요 없이 디스플레이센터의 경쟁력 있는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현재 아산은 디스플레이 산업의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다.



▲ 아산시 음봉면 소재 충남디스플레이센터 개소식

〈1면에서〉

또 하나의 성과로는 아산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미시간주립대학교 국제연구소 내에 부설된 영어연수 및 국제전문인프로그램(Visiting International Professional Program) 과정을 거쳐 미시간주립대학교 1학년으로 입학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외에도 ▲ 아산시의 랜싱시간 공무원 파견근무 추진 ▲ 관내 초·중학생(12~16세) 중 입학자(4명) 초청, 문화프로그램 운영 ▲ 랜싱시 및 이스트랜싱시는 10월 13일을 「아산시의 날」로 선포 ▲ 민간교류단 1회 이상 상호방문 적극 장려 ▲ 경제협력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상호 방문 추진 등이 있다.

상호교류 협력에 따른 연수기간, 비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은 2006년 12월에 체결하게 되며 영어연수 안내 및 연수생 모집 및 교환학생 정보 등 본격적인 교류는 2007년 초부터 추진된다.

이로써 아산은 학부형과 학생들로 하여금 그동안 영어권

외국연수에 따른 불신과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방자치단체인 아산시청이 중심이 되어 교육청과 지역내 대학이 공동으로 교육도시인 「랜싱시」와 「이스트랜싱시」 교육청, 대학간에 언어연수 등에 관한 상호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보다 효과적인 연수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시간주립대학 및 기타 명문대학에 진학 및 편입학할 수 있는 희망을 길러주고 정보를 공유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의 미국방문은 영어연수 및 미시간주립대학을 비롯한 미국내 명문대학 진학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였으며 교육도시로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하겠다.



▲ 랜싱시청 환영식에서 환영사에 대한 답사를 하는 강희복 아산시장

아산테크노밸리 본격 조성

지난 3월에 지방산업단지조 지정되어 추진된 아산테크노밸리 237만㎡(79만평)가 지구지정후 7개월만인 10월 23일자로 충청남도로부터 실시계획 승인되어 삼성전자 LCD단지의 50여개 협력업체가 입주하게 될 아산테크노밸리의 조성공사가 본격화된다.

아산테크노밸리는 우리나라 최대의 디스플레이단지의 협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디스플레이산업의 중추지역으로서 새로운 변모를 하게 됐다.

아산시는 중부권의 중추도시로 변모를 위하여 수도권권의 한정된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산업플러스터구조 기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탕정LCD단지의 협력단지조성으로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하여 현재 보상평가 완료된 상태로 11월부터 보상이 실시된다.

아산시는 사업재원의 효율적인 확보와 민간의 경영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3섹터방식을 도입하여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첨단단지의 기반시설을 갖춘 산업단지 개발 방안을 강구했다. 아산테크노밸리의 제3섹터사업은 충남도에서 산업단지 부분으로는 최초로 추진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 개발의 우수사례로써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타자치단체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아산테크노밸리는 종전의 산업단지와 달리 지구지정 이전부터 입주예정 업체에게 3회에 걸친 사업설명회와 각종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입주업체의 한계하는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산과 주거기능 및 서비스부문을 복합적으로 갖춘 유비쿼터스적 단지조성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시의 적극적인 의지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협력기관의 협조에 따라 위대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산업단지의 조성은 완료되면 13,000명의 고용유발효과와 연간 매출액 10조원, 5조 2천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8백여원의 지방세 수입이 예상되고 있어 아산의 지역경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산시 선수단 제87회 전국체전에서 우수한 성적 거둬

하키의 메카 아산하키의 자존심 지켜, 충청남도 종합4위 기여

충청남도가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7일간) 경복 김천에서 열린 제87회 전국체전에서 종합4위를 차지하여 작년에 6위에서 2단계 뛰어 오르는데 아산시 선수들의 역할이 크게 기여 했다.

아산시 선수단은 금13, 은8, 동14개를 획득했으며 특히 수영에서 금 12개 하키에서 여자하키일반부 우승, 남자하키고등부에서 준우승을 거둬 수영과 하키의 고장으로서의 명성을 빛나게 했다.

특히 아산시청소속 하키팀은 강호 목포시청을 결승에서 맞이하여 손에 땀을 쥐는 결전 끝에 후반 8분을 남겨놓고 1골을 추가 3:2로 승리하여 여자하키 일반부 단체전 금메달을 거머쥐는 쾌거를 이룩했다. 아직까지 우리시 하키 선수단

이 마을 놓고 운동할 수 있는 전용구장이 없어 운동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금년 연말 하키 전용구장 공사를 착공함에 따라 운동장이 완공되면 아산시 하키팀은 앞으로 마음놓고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어 아산하키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하여 관계자는 “그동안 땀 흘린 성과가 나타났으며, 특히 시하키팀에서 유독 그동안 인연이 없던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이뤘고, 또 시수영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이달 28일부터 개최되는 도민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이 기대되며, 다가오는 도민체전에서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여자일반부 하키우승

아산 농업발전의 기둥들

아산시농업대상 확정 발표

시는 지난 23일부터 24일 2일간 아산시농업대상 심의회를 개최하고 각 부문별 제14회 아산시농업대상 수상자를 확정 발표했다.

이번 농업대상은 농업현장에서 농·축·수산분야에서 기술보급과 작목개발등으로 생산성 향상과 농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 선정되었다.

부문별 수상자는 작목부문에는 수도작에 서용철(49세, 선장면), 채소에 박기영(61세, 도고면), 과수에 이희근(48세, 음봉면), 친환경채소에 이호상(49세, 영인면), 양돈에 양은석(40세, 음봉면)씨가 수상하였다.

협업농업부문에는 생산단체에 문포명미영농조합법인(문포면)이 수상하였으며, 관련단체부문에는 농촌지도자

아산시연합회(열치읍), 농정유공부문에는 이상표(35세, 농업기술센터)씨가 각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수도작 수상자로 결정된 서용철(49세, 선장면)씨는 적극적인 전업농 활동과 벼 생력재배 기술 파급효과를 극대화하였고 아산시 쌀 전업농연합회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으며, 채소에 박기영(61세, 도고면)씨는 지속적인 배움과 선진기술 전수를 토대로 한 고품질 작물 육성에 기여한 공이 인정됐다.

과수에 이희근(48세, 음봉면)씨는 전 작목반이 저농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원을 일일이 방문하여 신재배 기술지도 전파를 위하여 노력한 점이 인정됐고 또 친환경채소에 이호상(49세, 영인면)씨는 최고의 품질 추구로 소비자의 호평과 신뢰기반 구축에 노력한 점이 인정됐다.

양돈에 양은석(40세, 음봉면)씨는 매년 마을내 과수 농가에 분뇨퇴비 100톤 이상을 무료로 공급해 주는 등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과감히 해결하는데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었다.

농정유공부문에 수상자로 결정된 이상표(35세, 농업기술센터)씨는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지도 및 농업인 기술능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박기영(채소부문)



서용철(수도작)



양은석(양돈)



이희근(과수)



박기영(채소부문)



이호상(친환경채소)



이희근(과수)

아산시, 평생학습도시 본격 출발

늘 배움이 있는 도시, 늘 기쁨이 있는 도시, 늘 행복이 가득한 도시

아산시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7월 26일자로 2006년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고 그 실천의 일환

으로 지난 2일 아산시민의 날 기념 행사와 함께 평생학습도시 선포식을 갖았다.

이번 선포식은 21세기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발전하고 있는 아산시가 도시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평생학습을 통한 질적 성장을 추구하면서 교육시업을 시장의 최우선 목표로 추진한 결과라는 측면에서 더욱 더 뜻 깊은 의미를 부여한다.

아산시는 9월 30일 부산시 해운대구에서 개최된 제5회 전국평생학습축제로서 김신일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로부터 평생학습도시 인증서와 인증동판을 수여 받음에 따라 시민들과 함께 하는 시

민의 날 기념식과 함께 평생학습도시임을 선포했다.

앞으로 아산시는 평생학습도시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평생학습센터의 건립, 전문 인력의 확보, 평생학습 홈페이지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평생학습도시 선포식에서 강희복 아산시장장은, 아산시는 앞으로 평생교육을 통한 취업, 교양, 취미, 건강교육을 중점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가치와 행복 증진을 추구하고 이웃과 더불어 함께 하는 지역 공동체를 조성하며, 교육분야에 적극적인 투자를 통하여 지역명문학교 육성은 물론 지역 대학과 전략적 협력을 실시하여 기관·단체·주민이 함께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제5회 전국평생학습축제로서 평생학습도시 인증서와 동판수여



유관기관 소식

2006 민속생활사박물관 협력망 워크숍 개최

- 박물관교육 운영사례 발표 및 체험교육마당 운영 -

- 기간 : 2006년 11월 4일(토)~11월 6일(월) 3일간
 - 워크숍 : 2006년 11월 6일(월) 13:00~17:30
 - 체험교육마당 및 부대 행사 : 2006년 11월 4일(토)~6일(월) 10:00~17:00
 □ 장소 : 체험교육마당 및 부대 행사 - 온양민속박물관
 워크숍 - 아산시청 대강당
 □ 내용 : 지역박물관 교육운영 사례 발표 및 체험교육마당 운영 / 워크숍-박물관교육 운영사례 중심으로 발표 및 토론(7개 주제) / 체험교육마당-참가 기관 신청 접수 후 선정(11개 기관 15개 프로그램) / 공연 및 행사-특별공연(전통무예 18기, 북청사자놀이, 택견), 사진 찍기, 찾아가는 민속박물관 버스 전시 및 체험, 민속놀이 체험 등
 - 체험교육마당 참여기관 현황(선정) : 11개 기관 15개 프로그램

참여기관	체험교육내용
가회박물관	민화 그리기
연기향토박물관	승경도 놀이와 생목 놀이
명주고판화박물관	판화 체험
덕포진교육박물관	전통놀이(떡지, 제기, 바람개비)
인제신촌민속박물관	땃목 만들기 체험
술박물관 리퀴리움	가상 음주 체험
금오민속박물관	전통문양 찍기 체험
온양민속박물관	한지공예 체험
한국대나무박물관	죽제품 제작 체험
미리벌민속박물관	짚 풀 체험
국립민속박물관	만들기 체험
	붕산 탈 만들기
	솜대 깎기
	단청 문양 그리기
배우기 체험	단소 만들기
	민요+북청사자 춤, 택견

- 워크숍 발표자 현황(선정) : 7개 주제

발표주제	발표자
지역박물관 활성화 방안	한선학(영주고판화박물관)
전시물을 매개로 한 경험과 참여	김동선(덕포진교육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한 활성화	김형석(한밭교육박물관)
교육 강사가 본 협력망 사업	조희진(교육 전문 강사)
사회 복지사가 본 박물관 교육	정애진(충현복지관)
소장 유물 정리 지원사업	조현숙(국립민속박물관)
홍보를 활용한 박물관 활성화	윤지영(국립민속박물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공연 및 행사/교육 운영)

- 기간 : 2006년 11월 4일(토)~11월 6일(월)
 □ 장소 : 온양민속박물관 교육장 및 야외전시장
 □ 내용 : 박물관교육 및 문화행사 운영
 - 토요일이 좋아요(민요+북청 사자 놀음)
 ⇒ 11월 4일(토) 14:00~15:00
 - 가족과 함께 박물관 나들이(단소 만들기 놀이)
 ⇒ 11월 5일(일) 10:00~13:00
 - 성인민속교실(오색한지공예교실, 15주)
 ⇒ 11월 6일(월) 10:00~13:00 <참관>
 - 토요일공연 / 결연 택견(2회) ⇒ 1월 4일(토) 14:00/15:30
 - 일요일공연 / 전통무예 18기 시범공연(2회)
 ⇒ 11월 5일(일) 14:00/15:30
 - 월요일공연 / 북청사자놀이(2회) ⇒ 11월 6일(월) 14:00/15:30
 - 찾아가는 민속박물관 버스 전시 및 체험코너 운영
 ⇒ 11월 4일(토)~11월 6일(월)
 - 온양민속박물관을 매개로 가족사진 찍기
 ⇒ 11월 4일(토)~11월 5일(일)
 - 민속놀이마당 운영 ⇒ 11월 4일(토)~11월 6일(월)
 - 온양민속박물관에서 숨은 유물 찾기
 ⇒ 11월 4일(토)~11월 5일(일)



음연동 소식

가을과 함께 찾아온 온양온천여성합창단 단풍음악회

- 어의정 야외특설무대에서 -



온양2동주민자치센터는 24일 오후 6시 어의정 야외특설무대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온양온천여성합창단 2006 단풍음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아름다운 가을밤을 선사했다.

온양온천여성합창단은 2001년 창단된 이래 단장 이의상을 중심으로 가정주부 40명으로 구성되어 활발하게 활동. 충남한강경연대회에 참가하여 통상을 수상한바 있으며 자기계발과 친목도모 및 불우이웃돕기 등 봉사활동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

단풍음악회는 식전행사로 아산팔하모니오케스트라의 공연에 이어 주민자치센터에서 틈틈이 익히고 연습해 온 온양온천여성합창단(단장 이의상)의 공연이 화려하게 펼쳐졌다.

온양온천여성합창단은 "여유있게 걷게 친구", "나는 그곳에 가리라", "바다로 가자", "외침", "가고파", "그리움", "아무도 모르라고", "어둠에서" 등 주옥같은 곡을 선사하였다.

특히 특별출연한 온양온천소년소녀합창단은 "우리집에 왜 왔니", "아름의 축복", "내 맘속에", "오즈의 마법사" 등의 곡을 들려주었으며 귀여운 천사들의 노래는 봄악회에 흥겨움을 더해줬다.

한편 온양2동장은 "음악회를 통해 아름다운 곡을 주민들에게 매년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주민에게 다가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온천동 주민명예기자 이해상〉

정부포상 대상자 국민추천 안내

□ 누가 추천할 수 있습니까?

일반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단체로는 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만이 추천

□ 어떤 사람들이 추천대상입니까?

- 자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구한 자

- 다년간 사회봉사와 이웃사랑을 실천한 자

- 어른을 공경하고 덕행이 탁월하여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자

- 정신적·육체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남들이 기피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일에 헌신한 자

- 공사생활에서 타인의 모범이 되고,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는 누구나도 가능합니다.

※ 다만, 본인과 배우자 및 그 가족(2촌), 업무관련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 어떻게 추천하면 됩니까?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에서 직접 추천하거나, 우편으로 추천서를 제출

• 홈페이지에서 추천할 경우, "주요정책-일반행정정보-정부포상안내"로 접속하신 후 "정부포상 국민추천" 코너에 민적사항과 공적내용을 입력

• 우편으로 추천할 경우,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및 "추천동의서"를 내려받아 [110-760 서출복합서 공도주 세종로 55번지 행정자치부 상훈팀]으로 제출

□ 추천하면 어떻게 처리되며 언제 포상하게 됩니까?

• 정부포상 후보자의 추천서가 접수되면 공적내용에 따라 관련 쟁점사항과 자비자치단체로 이속

• 포상추천기관에서는 공적사실을 조사하여 그 공적의 정도가 기관장표창 대상이면 해당 기관장의 표창을 실시 가능

• 만약, 훈·포장, 국무총리·대통령표창 대상이 되면 행정자치부도 수선하여 중앙공직심의회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포상

• 다만, 포상은 각 추천부처에서 분야별로 1년에 한차례 실시하기 때문에 추천하여 대상자가 되었다고 하여 즉시 포상이 되는 것이 아님

11월 1일부터 새 디자인의 자동차번호판 부착

건설교통부는 규격, 글자모양 및 색상 등을 변경한 새로운 디자인의 자동차 번호판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번호판의 규격은 가로로 긴 유럽형 번호판(520×110mm)으로 바뀌었으나, 현재 생산중인 자동차나 운행 중인 자동차를 위하여 짧은 규격(335×155mm)의 번호판도 병행하여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11월 1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자동차도 긴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자동차가 아닌 경우에는 짧은 규격의 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하나, 자동차 소유자가 긴 번호판 부착을 희망하는 경우 앞 번호판은 긴 번호판으로 부착이 가능하다.

현재 운행 중인 자가용자동차 소유자는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교체할 필요는 없으나, 희망하는 경우에는 새 번호판으로 교체가 가능하므로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새 번호판 발급을 신청하면 수수료 납부 후 교부가 가능하며, 이때에도 앞 번호판은 긴 번호판, 뒷 번호판은 짧은 번호판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번호판의 디자인상의 특징은 색상은 무채색(흰색 계통과 검정색 계통)으로 디자인 하였으며, 전체 자동차 대수의 4.4%를 차지하는 운수사업용 자동차번호판은 바탕색은 현행과 같은 노란색으로 하되 글자색은 검정으로 변경하여 시인성을 향상시켰으며, 전체 자동차 대수의 2.9%를 차지하는 대형 번호판은 현재 규격을 유지하면서 디자인만 개선하였다.

□ 새 번호판(자가용) 디자인

52가 3108

39나2764



아산시민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안 내 · 알 림



200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결정·공시일 : 2006년 10월 31일
- 이의신청 접수기간 : 2006년 11월 1일~11월 30일 (30일간)
- 장소 : 시청 토지관리과,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홈페이지
- 대상 필지수 : 3,837필지
- 내용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30일간 이의신청 접수
- 후속 조치 :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 재감정 실시 후 검증결과와 소유자에게 개별통지

2006년 11월 1일부터 장애인 LPG지원 제도 개선

1. 2006년 11월 1일부터 더 이상 신규로 LPG지원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2. 2007년 1월 1일 이후에는 1~3급 장애인에 한하여 현재 수준과 동일한 최대 250리터의 지원금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3. LPG지원제도는 2010년 1월 1일 이후에는 완전히 폐지됩니다. (1~3급 중증장애인의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만 LPG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한편 LPG 지원제도가 개편되더라도 보조금 지원만 중단되고, 사용하는 LPG 연료는 계속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자동차세나, 고속도로 통행료, 공영주차장 감면 등 기존에 받으시던 혜택은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 041) 537-3751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대상 소득기준 상향조정 안내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일자리 참여자 기준을 확대 시행하나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대상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60%이하 출산 가정으로 2006년 10월 16일부터 확대
- 첫째아 출산가정 포함 (기초생활수급가정은 해산급여로 대체)
- 소득기준 초과 및 접수기간 경과자에 대한 지원 가능
-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판단한 경우 지원(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쌍생아 등) : 진단서 첨부
- 접수
- 신청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신청기간 : '06년 12월 30일내 출산가정으로 출산예정일 60일전부터 신청가능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혹은 월급명세서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 의사진단서(출산 전) 또는 (출산 후) 1부 (기존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생략)
- ※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접수는 목표량 범위내에서 접수(쿠폰)
- 문의 : 보건사업과 가족보건담당 ☎537-3423

2006 채용박람회 개최

- 일시 : 2006년 11월 22일(수)~11월 24일(금) 3일간
- 장소 : 선문대학교 아산캠퍼스 실내체육관
- 참가규모 : 구직자 1,000여명, 구인업체 30여개업체 (디스플레이 업종)
- 내용 : 디스플레이 관련 우수기업을 참여시켜 구직자에게 취업의 기회 제공, 구인업체에게 양질의 인력제공
- 주최 : 충청남도, 아산시
- 주관 : 충남디스플레이인력양성사업단(누리사업단), 충남디스플레이협회
- 후원 : 교육인적자원부, 삼성전자, 충남전략산업기획단

제5회 『아산시 건축상』작품 응모 공고

우리시에서 도시경관증진에 기여한 우수건축물을 선정·포상하여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인재 발굴 및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장려를 위하여 제5회 『아산시 건축상』작품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모 대상 : 2004년 10월 ~ 2006년 10월 아산시 소재 (임시)사용승인 건축물(2년진)
- 응모 기간 : 2006년 11월 1일 ~ 11월 20일(20일간)
- 제출 장소 : 아산시청 건축과 (건축디자인 담당)
- 제출 요령 :
- 가. 자격 : 응모대상 건축물의 건축주 및 건축가
- 나. 원 서 : 아산시 홈페이지(<http://www.asan.go.kr>)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 다. 건물 전경을 파악할 수 있는 B4사이즈 크기의 전경 사진 및 조감도(배설 제작) 1부
- 라. 건축물개요(설계설명서), 매지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조감도 또는 완공된 건축물사진 (9×12cm)
- 마. 규격 : A3 좌·편철(백도)
- 심사 기준
- 거품배치 및 평면계획의 합리성(작품성)
- 외관, 형태의 창의성(독창성)
- 옥외공간의 구성 및 교통처리 방법(합리성)
- 외부 마감재 및 색상 적용의 적정성
- 주변 환경과의 조화
- 수상작 발표 : 2006년 12월 중 수상작에 대하여 아산시청 홈페이지에 게재 및 개별통지하고 수상자에 대하여는 아산시청 중무식 행사시 (2006년 12월 29일) 시상
- 수상 내용
- 가. 시상종류 : 대상1, 금상1, 은상2, 동상2
- 나. 내 용
- 건축주 : 동판을 제작하여 건축물에 부착
- 설계자 : 상패수 및 아산시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 다. 수상자(설계자)에 대한 특전
- 대상 수상작 설계자는 아산시경관심의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건축공사 수의계약사항 우선 협상권 부여
-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건축공사의 관련 우선 상담권 부여
- 기타
- 가. 응모 작품에 대하여는 반환하지 않음.
- 나. 상기 일정은 우리시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다. 세부사항은 아산시 건축과 (☎041-540-2993)로 문의

시정신문 무료배부안내

『아산뉴스』가 매일 여러분 곁을 찾아가합니다. 『아산뉴스』는 아산시정과 행사, 생활정보 등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담아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매일 25일 발간되는 아산뉴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540-2020(아산시청 공보체육과 홍보담당)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06 온양온천 전국마라톤 대회 개최

- 일시 : 2006년 11월 11일(토) 10:00 ~
- 장소 : 아산 신정호 국민관광단지
- 참가인원 : 4,000명
- 참가종목 : 하프(21.0975km), 건강코스(10km), 미니코스(5km)
- 개최코스 : 신정호 (출발) → 623도로 → 경덕고개 → 송남중학교 반환 → 신정호(도착)
- 주최 : 아산시체육회/대전일보

'06~'07절기 인플루엔자(유행성 독감)접종

- 접종시기 : 2006년 11월 ~ 12월까지
- 접종대상 : 전 시민(부선접종 권장대상자 우선 예방접종 실시)
- 인플루엔자 안전접종을 위한 분산 예방접종 계획
- 11월 1주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집단시설 수용자, 요양시설 수용자
- 11월 2주 : 국가유공자, 장애인 1·2·3급 등
- 11월 4주 :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및 기타 무료대상자
- 11월 5주 : 65세 이상자 노인
- 12월 1주 ~ 4주 : 50세 ~ 64세, 영유아(만 36개월 미상) 등 우선접종 대상자, 부도접종대상자중 누락자, 기타 희망자
- 준비물 : 신분증, 예방접종 예진표-보건(소)자소 비치
-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중심 예방접종 실시(우선접종 대상자중 최우선 무료대상자부터 전종하며, 일반시민은 12월 예방접종 실시)
-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자중 현재 병·의원 치료중인 자 및 영·유아(만 36개월 미만)는 민간의료기관 주치의와 상의 후 접종토록 권장함.
- 급기사항 : 고열, 심한 발열(38.5도), 과민성, 과민성 등 본체에 의한 과민반응이 있었던사실 등
- 문의 : TEL. 041) 537-3409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안내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006년 11월 16일(목) 전국 76개 시험지구의 시험장(시험장수 미확정, 전년도 962개 시험장)에서 500,090명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범국가적인 시험으로 시험 당일 수험생 등 대규모 인원들이 시험장 주변으로 이동함에 따라 수험생이 시험장에 늦게 입실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별 사업체 및 시민들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험생을 우선 부모납입에서는 학생이 08: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의 멋과 맛을 느끼는 추억여행 단비 속 성료

소박한 우리들의 축제에 북적북적 사람 사람들

지난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전통의 멋과 맛을 느끼는 추억여행'이란 주제로 아산시 송악면 외암인속마을에서 개최된 제7회 외암인속마을짚풀문화제는 가을 가문의 단비 속에서도 10만 명의 인파가 물리면서 향토 전통 문화축제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가을정취와 초가지경이 잘 어울리는 짚풀문화제의 무대인 외암마을은 400여년 전의 가옥이 그대로 보존된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전통 마을과 설화산과 광덕산으로 연결되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평소에도 선풍을 맞이 않으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농경문화를 그대로 보여 줄 수 있는 짚풀을 소재로 매년 10월에 개최되며, 조상들의 지혜와 습치가 짚과 풀을 통하여 예술적 가치를 지닌 전통 및 창작 공예작품으로 태어났으며, 향수를 느끼려는 노인 및 중장년층을 비롯하여 우리 것을 배우려는 청소년들이 짚풀문화제를 찾아 전통을 배우고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작년과 차별화 된 프로그램으로는 주제관을 '나의 삶전고향'이란 테마로 구성하여 추억의 향수를 자아내게 했으며, 소주내리기, 옛(조청) 만들기, 용두레 체험, 김삿갓도동이 체험, 봉숭아 손톱볼들이기 등

여느축제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하고 색다른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방문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였고 많은 체험기회와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특히 무형문화재 공연으로 줄타기, 배뱅이굿, 양주별산대놀이, 장승퍼포먼스까지 다양하게 진행되어 관람객과 취재진들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전국 짚풀공예품 홍보전을 통하여 짚풀 공예품의 수준을 한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총 98작품이 출품되어 영예의 대상(작품명:대청석)은 경기도 파주시 월봉면 도내리 272 잔춘금씨에게 돌아갔다. 앞으로도 전국 짚풀공예품공모전은 매년 개최할 계획이며 기능자와 우수 작품을 발굴하고

농촌 노인분들의 여가 활동에도 변화를 주는 한편, 짚풀공예품의 예술적 가치를 점차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다. 금번 외암인속마을 짚풀문화제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책임 있는 봉사를 해 줌으로 우천시와 행사에도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질서 있게 개최되었다.

외암인속마을보존회와 시관계자는 마을주민과 관광객, 자체평가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를 거듭할 수록 더욱더 규모있고 알찬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자연과 흙과의 만남 외암도예촌

투박한 질그릇에서 느끼는 편안함이 있는 곳

광덕산 산자락 감당골에 아름다운 풍경하나 외암도예촌이 자리 잡았다.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미술대학과 공예과에 재직하고 있으며 한국현대도예가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병역 교수다. 벌써 3년전부터 이곳에 다들 잡고 준비하여 지난 10월 21일 오픈하였다.

투박한 도자기와 달리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김병역 교수는 홍익대학교 미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공예과를 졸업했으며 도예개인전 10회, 도예관련 책4권 출판, 예술의전당 미술관 개관 초대, 천주국제비엔날레전 초대 등 인원이 열거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할 정도이다.

1층 작업실에는 학생인 듯 보이는 젊은 도예가들이 작품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아마도 제자인 듯 싶다. 지난해

개이 작업에 방해될까봐 조심스럽다. 2층 전시실에는 주인장의 손끝에서 나온 울퉁불퉁 정수려운 도자기들이 푸근하고 편안해보이는 주인장의 인상과 흡사하다. 도자기에서 풍겨 나오는 전통적인 매력이 방문객의 정서를 자극한다. 앞으로 외암도예촌은 성신여자대학교 부설 도예실 습교육원으로도 활용하고 일일체험과 더불어 전통도예전문가 과정을 교육하며 도예갤러리, 도예세미나 개최, 입주작가 오픈 스튜디오, 외국작가들을 초빙해서 워크샵도 개최할 계획으로 외암 도예촌은 지역 문화공간 뿐만 아니라 국제교류의 현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전통가마에서 도자기를 구워낼 것이라 하니 감당골을 찾은 관광객과 지역주민에게 자연경관과 멋스러운 도자기의 어울림이 아름다운, 도자기를 어디에 놓아도 잘 어울릴 것 같은 자연전시실까지 한쪽의 풍경화를 선물할 것으로 보인다. 전화 : 534-6127

